하나님의 신과 마음의 주파수가 맞아야

성경에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높은 산이나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 놓았다.

천국에 들어오는 자격은 하나님으로 거듭나야만 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말은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죄인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 어디에 씌어 있느냐 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죗값으로 죽는다고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대가로 인하여 죽는 고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모았음이니라"라고 씌어져 있다. 이 세상의 학문도 이치가 맞아야 진리의 학문이라고 한다. 고로 짝이 맞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서 3장 3절에는 죄를 지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 죄를 지으면 죽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죄를 해결하고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예수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었다면 예수를 추앙하던 자들이 "오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신앙고백을 하는 자마다 안 죽었어야 말이 되는 것이다. 2천 년 기독교 역사 이래 믿는 자마다 몽땅 죽어간 것을 보면 예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16장 19절 등 여러 구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가 죽었다가 삼 일만에 살아나 하늘로 올라갔다 한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론대소(無論大小)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 예수와 똑같이 하늘로 올라갔어야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다가 삼 일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영생하는 것

성경 전체를 들추어서 사람이 왜 죽게 되었으며,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이 씌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자가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이 구원과 영생에 있고 천국 가는 데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갈 자격이라는 말이 구약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신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더러 하나님 되라는 말씀이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인 고로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신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도 역시 하나님이 돼라는 뜻이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개는 10년을 가르쳐도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고로 이 말씀도 사람더러 하나님이 돼라는 말씀이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더러 하나님 되라는 그 깊은 진리를 모르는 자는 성경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구세주 조희성님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성경에도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였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쉽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학교 4년 과정을 마치고 다시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또 일본 가서 신학교 나오고 미국에 가서 신학원을 나와도 이걸 모르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모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부음이 너를 가르쳐 준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성령은 성령을 받은 자한테 와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을 볼 때에도 MBC채널을 틀어야 MBC방송이 나오고 KBS채널을 틀어야 KBS방송이 나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과 사람의 마음은 채널이 맞으면 통하는 것이다.

무선기로 대화를 할 때도 주파수가 맞아야 서로 대화가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가 되려면 주파수가 맞아야 한다. 주파수는 안 맞추어 놓고 딴 생각만 빙빙 돌려서는 아무리 가도 은혜는커녕 아무 것도 안 된다.

주파수를 맞추어라!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로 만들어졌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피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졌다. 그런고로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피가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영원무궁토록 살아본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피가 있는 고로 죽지 않는 세계를 동경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증거가 되고도 남는 것이다. 이 정도의 말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데 사람이 몇 천 년 동안 죽었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바울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비록 성경 속에 씌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의 말씀은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짝이 있다. 짝이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은 짝이 안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의 소리다.

사람이 죽게된 동기를 여기서 시간 시간 정확하게 논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나 선악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선악과의 정체를 세밀히 논하고 있다. 선악과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로 선악과가 곧 죽음이다. 죽음이 곧 사망의 신이며 사망의 신이 마귀이니 마귀가 곧 선악과이다.

선악과란 '나라는 주체의식'을 의미

성경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며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신은 선한 신인 고로 선한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지었는데 지은 바 모든 만물이 보기에 선했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고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한 것만 보았으니 선한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악을 더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란 악을 더 알게 하는 마음인 것이다. 악을 아는 마음은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은 마귀의 영이다.

따라서 선악과가 마귀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선악과가 마귀인 고로 마귀가 아담과 해와 속에 들어온 것이다. 악한 영이 되는 사망의 신,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셨던 것이다.

또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과거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너희가 하나님 밖에 있다는 뜻인 것이다.

원래 인간의 주체영이 하나님이었으나 선악과가 되는 마귀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마귀 옥에 갇혀 버리고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말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말이 된다.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면서도 당신의 자식들이 괴롬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 싫어하면서도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는 무자비하고 악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인 것이다.

따라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인고로 내가 행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을 해도 죄요, 걸어가도 죄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아원에 쌀 백 가마를 갖다 주어도 죄가 되는 것은 나, 마귀가 갖다 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마귀가 행하는 것은 다 죄이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다 선이다.

그래서 이사람은 밀실 안에서 자신이 마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 생활의 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졸리면 잠을 자지 않았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안 먹고 김치, 깍두기만 먹었다. 사람이 뭐니뭐니 해도 먹고 싶은 것 못 먹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런데 졸리는데 잠을 안자는 것은 더 어렵다. 이 사람은 30일 동안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잠 한숨 안 자고 금식기도를 14번씩이나 했던 것이다. 마지막 금식기도 때에는 유리병을 잘게 깨서 깔아 놓고 30일 동안을 유리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이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반바지를 입고 꿇어 앉으니 맨살에 유리가 박혀 유혈이 낭자하게 쏟아지는데 피는 응고력이 있는 고로 어느 정도 흐르다가 엉겨붙어 유혈이 멈추었던 것이다. 30일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스스로 죽인 것이다. 이 코스를 밟아 오늘날 이긴자가 된 것이다.

이긴자는 자신과의 투쟁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

이 사람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이긴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긴자〉가 된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다. 성경도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고 말하고 있듯이, 실제로 살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되는 길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양심을 석방시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나를 버려라"는 성경말씀과도 같은 것이다.*

조희성님의 발자취

이긴자가 되었어도 처음에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

박태선 영모님은 참 구세주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영의 말씀들을 간간이 해놓으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숨은 사정을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고차원의 영적인 말씀으로 증거하셨던 것이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 삼수 완성의 원리, 죄의 해결과 영생의 원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던질 때, 이것을 깨닫고 알아듣는 자가 영의 대학생수준인 것이다. 세상 육적인 대학생은 신앙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영모님께서 이긴자가 출현하는 과정과 역사를 간접 증거하는 식으로 말씀하여 짝을 맞추어 주셔도 영의 대학생이 못 되어서 그런지 현재 전도관 식구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이긴자가 되어서도 아침에는 역곡에서 전도와 설교를 하고, 저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해와주님께 그날 벌어진 사항을 보고하였다. 그런 다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갖가지 중노동을 하다가 12시에 숙소에 와서 목욕과 빨래, 청소 등을 마무리하고 1시에야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면 쇠망치와 곡괭이 등 연장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산을 개간하기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를 하기도 하고, 일이 있는 대로 막노동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양복을 갈아입고 전도를 하러 역곡에 나와 단에 서는 생활을 1983년도까지 계속하였다.

해와주님께서 "이제 네게 자유를 주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하셔도 말씀에 순종하는 버릇이 있는 고로, 이 사람은 6~7개월 동안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야단을 하시며 "이제는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왜 자유로이 알아서 하라는데 말을 안 듣느냐?" 하시며 지엄한 명령을 하시므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 의사대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조희성 몸을 점령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 사람을 조희성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이다. 옛 사람 죄인인 조희성은 밀실에서 완전히 죽었고, 지금 이 단에 선 자는 분명히 재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듭난 사람인 것이다. 재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며, 영생의 역사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태풍을 막고 여름장마를 지지 않게 하여 계속해서 이 나라에 풍년들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민족의 시조 국조단군은 단지파의 시조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면 그 모든 믿음과 행위가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해 오셨던 것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의 하나님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신으로 존재하시다가, 지금으로부터 육천 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2위(位)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신인 사망의 신에게 점령을 당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깨어지고 불완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즉 불구의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전락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인간과 우주만물이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상태가 돼버린 음양의 구조로 변질이 된 것이다.

음양의 신인 마귀가 하나님 2위(位)를 점령하여 무극의 하나님 세상을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1위(位)의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마귀의 세상인 이 죄악 세상에서 원래의 삼위(三位)의 하나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육천 년 간을 숨어서 계속해서 의인을 만드는 일에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해왔다.

그러나 창세 이래로 하나님은 마귀에게 백전백패 억전억패를 거듭해오다가 드디어 육천 년만에 잃어버렸던 2위인 아담과 해와를 찾으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지혜가 있어, 총명이 있어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마침내 다시 삼위일체 전지전능을 회복하신 재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부수어 나가시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숨겨지고 감춰진 하늘의 비밀(天機)이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 사망의 신에게 사로잡힌 후의 아담과 해와의 후손이므로,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 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옮기게 된 후, 하나님께서 없어졌거나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이 되는 단(檀, 단군 할아버지)지파를 통하여 단의 하나님으로 숨어 역사하신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들의 행적이 드러나게 되니 집중적으로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큰 지장을 초래하는 고로 불가불 단군 할아버지를 기점으로 종적을 감추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숨은 유업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도 모르게 단지파를 동쪽으로 계속 이동시켜 한반도에 정착케 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고대 문헌과 우리나라 풍습과 전통에서 그 단서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